

# 12월 도내 소비자심리지수 87p

### 한은 전북본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전월보다 2.8p ↑ 생활 형편·가계수입 전망·향후 경기전망 모두 상승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022년 12월 중 87.0으로 전월(84.2)보다 2.8p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89.9로 전월(86.5)보다 3.4p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

편은(83~85)이고 생활형편전망(79→81), 가계수입전망(89→93), 현재경기판단(48→52), 향후경기전망(52→58) 등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취업기회전망(62→67), 임금수준전망(108→112)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금리수준전망(148→134), 가계저축전망(86→85), 가계부채전망(103→102), 주택가격전망(68→64)은 전월보다 하락세로 집계됐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중 전북 지역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83~85)과 생활형편전망(79~81)은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가계수입전망에서도 전월보다 상승(89→93)세를 보였지만 소비자대출전망은 전월보다 하락(104→102)세, 지출형편별로는 내구재를 제외한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월대비 하락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경기판단(48→52)과 향후경기전망(52→58)은 모두 전월대비 상승이고 취업기회전망(62→67)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금리수준전망(148→134)은 전월보다 하락세이다.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중 현재가계저축(84~83)이고 가계저축전망(86→85), 현재가계부채(102→100), 가계부채전망(103→102) 모두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물가수준전망은(147→145)이며, 주택가격전망(68→64)은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전망(108→112)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자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이다. /김영태 기자

## 입맛 살리고... 건강 챙기고...

### 농진청, 겨울철 대표 열매채소 '딸기' 추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철 상큼함과 달콤함이 눈과 입을 자극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표 열매채소로 딸기를 추천했다.



국산 딸기 품종 '설향'

오렌지보다 각각 13배, 11배 높다. 특히 딸기 7~8알이면 성인이 하루 필요한 비타민 시(C) 권장 섭취량(100mg)을 거뜬히 채울 수 있다.

딸기는 지난 197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해 봄에만 맛볼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비닐온실이 보급되며 지금은 한 해 생산액이 1조4,757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겨울 대표 열매채소(과채류)로 자리매김했다. 또 딸기(설향 품종)는 맛도 좋을뿐더러 몸에 좋은 생리활성 물질도 풍부해 겨울철 수렴되는 오렌지보다 항산화 활성이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시(C)와 플라보놀 함량은 딸기가

딸기는 신선할 때 생 열매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보관 중 무른 딸기는 으갠 뒤 꿀, 우유와 섞어 주지만 해도 누구나 좋아하는 생딸기 우유가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은 96.3%(2021년)로 시중에 판매 중인 딸기 대부분이 우리 품종이다. 맛과 기능 성분이 풍부한 딸기와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한우사골곰탕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 참여우 조합 공동사업법인 어르신 축산물 나눔 행사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권용학)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소외 계층에게 축산물(한우사골곰탕)을 나누는 행사를 27일 진행했다.

권용학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한우사골곰탕을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참여우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권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전라북도 한우광역브랜드인 '참여우'의 사랑해와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협 및 축산 단체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창업지원 성과보고회

전북바이오진흥원창업지원팀이 27일 전북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와 창업지원 성과보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올 한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21개기업 투자

### 새만금청, 1조1852억원 규모 협약 체결로 개청 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 달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올 한해 새만금 국가산단단지내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투자 업종은 이차전지 소재(7개사), 반도체 등 첨단소재(2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친환경 가스생산시설, 의류기기 등(9개사)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입주지원 간담회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 등으로 이미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등 2개사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고, 해외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한중합작 배터리 소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국가산단단지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57건 5,339,60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1·2공구의 경우, 90%가 분양

이 끝났으며, 내년 12월에 조성되는 5·6공구도 현재 31%가 분양되는 등 기업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공장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는 기업에 제공하는 저렴한 장기임대료(100년간 토지가격 1%)와 타지역과 차별화된 과학적인 세제혜택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 또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의기투합해 투자유치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을 점검하고, 상호지원 하는 등 역량을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순환경제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선 것도 한 몫을 했다.

새만금청은 그간 입주가 제한됐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입주를 허용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산업 협력 지구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국가산단단지는 군산 산업위기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나, 내년 상반기 지정 해제에 따라 기업지원 절벽을 앞둔 상황이다.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에 그린수소,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기반의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연관 산업 및 기업들을 집적화할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를 집중하겠다"며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핵심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혜택을 발굴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올 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55곳 적발

### 농관원 전북지원, 특사경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투입 거짓표시 94곳 형사입건·미표시 61곳에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 올해 원산지 표시 위반 155개(거짓표시 94, 미표시 61)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단속 방식으로 펼쳤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적발 업체(94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통해 송치했다. 또 미표시 업체(61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1,689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를 했다. 이중 대형 저능적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을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수사(닭고기, 고춧가루 2건)했고,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 통신 판매의 위주로 단속 결과는 전년(8건) 대비 129%(72건) 증가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41건(24.6%)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34건(20.4%), 콩 14건(8.4%), 쇠고기 13건(7.8%), 닭고기 6건(3.6%), 쌀 4건(2.4%)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에선 일반음식점 87개소(56.1%)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 28개소(18.0%), 도소매업체 16개소(10.3%), 식육판매업체 13개소(8.3%), 통신판매체 7개소(4.5%), 노점상 및 기타 4개소(2.6%) 순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상황과 수입증가 품목 등을 고려해 살, 추석, 휴가철 축산물, 대학, 학원가음식점, 배추김치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설(1월)과 추석(9월) 명절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품목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6월 대학, 학원가 주변 저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휴가철(7, 8월)에는 육류소비 증가 및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축산물 단속을, 10, 11월에는 배추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곡산 고춧가루와 식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상황을 자세히 살펴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